

조선업 르네상스, 원·하청이 함께 만든다!

- 김영훈 장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원·하청 노사 상생협력 방안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6일(목)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선소 현장을 시찰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수주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고, 조선업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터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약 30분간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 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예방 체계, 숙련 인력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청 및 협력업체 노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및 협력 구조 정착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청년층 유입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숙련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조선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한 만큼, 상생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영훈 장관은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가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야말로 조선업 르네상스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선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청년 친화적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비 104억 규모로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와 원하청이 공동 설계하는 협력사 신규·재직자 공제사업과 협력사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채용장려금, 정주여건 개선, 안전보건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양산업 특화 고용센터(부산)를 신규로 지정하고, 조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원청, 지역대학 등에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선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도 업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 간담회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철수 (044-202-7212) 황종호 (044-202-7230)



- ☐ **일시 · 장소:** 3.26.(목) 16:00~17:30,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 ☐ **행사 기조:** 원하청 상생에 앞장서는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를 격려하고
조선업을 청년 고용·지역 활성화 업종으로 만드는 방안 논의
- ☐ **참석자**(총 10여명)
- (노동부) 장관,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정책실장, 부산청장, 통영지청장,
장관정책보좌관, 고용정책총괄과장
 - (원청 : 한화오션) 김창용 부사장, 임원배 상생협력본부장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 지회장
 - (협력사) 김성구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

☐ **세부 일정**

* 사회 : 고용정책총괄과장

시간		주요 일정	장소	비고
16:00~16:05	5'	▶ 한화오션 정문도착 → 신뢰관 입구	정문	언론 공개
16:05~16:35	30'	▶ 현장 야드투어	야드	
16:35~16:40	5'	▶ 간담회장 착석 및 참석자 소개	신뢰관 T-5	
16:40~16:45	5'	▶ 인사 말씀(장관)		
16:45~17:20	35'	▶ 자유 논의		언론 비공개
17:20~17:25	5'	▶ 마무리 말씀(장관)		
17:25~17:30	5'	▶ 폐회 및 기념촬영	신뢰관 로비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소리가 들리는 이 곳,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원·하청 노사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선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조선업은 다시 한 번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격차의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선업 르네상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조선업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첫째, ‘상생’이 상식이 되는 현장입니다.
원청과 협력업체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하나의 배를 만드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칭찬하셨던 한화오션의 원하청 상생 모델이
조선업 르네상스를 전인할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통해
기업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화오션, 협력사 근로자 1.5만명 대상 동일 비율 성과급 지급(890억)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3.10)'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시며 칭찬

잘 아시다시피 올해 노동부는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를 신설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재직자 공제 지원, 중장년 장려금 지급 등
중앙-지방정부, 원·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106억원 규모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경남-조선업(106억)> 노동부(39억)-경남(27억)-원청(20억)-협력사(20억) 매칭지원

둘째, ‘청년’ 이 꿈을 설계하는 일터입니다.
조선업이 ‘힘들고 위험한 일’ 이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숙련 노하우가 결합된 ‘첨단 전문직’ 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조선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청년 친화적 일터’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양산업에 특화된 부산특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업 구직자 풀을 구성하여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한화오션과 같은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재직자와 채용 예정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부울경 초광역권의 신규취업청년 확대를 위해
자산형성, 주거, 교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이 권리가 되는 조선소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들이 안심할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지원합니다.
경남의 경우 조선업 등에 대한 컨설팅과 재정지원,
외국인·고령자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현장과 맞닿은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원·하청 기업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조선업이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논의를 넘어,
조선업이 지역 경제의 자부심이 되고 청년들의 희망이 되는
‘조선업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